



**진푸티 종사 강설**

**불설관무량수불경**

진퓨터 종사 강설  
<불설관무량수불경>

송(宋) 서역삼장 강량야사 한역

보디트리 프로덕션 제작

나무아미타불  
(삼창)

개경계 開經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여시아문, 일시, 불재왕사성기사굴산중,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 보살 삼만이천, 문수사리법왕자이위상수.

강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부근의 영취산(靈鷲山)에서 1,250 명의 큰 비구승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곳에는 3 만 2 천 명의 보살들이 함께 계셨는데, 그중 문수사리보살님이 수좌를 맡으셨다.

이시왕사대성유일태자, 명아사세, 수순조달악우지교. 수집부왕빈바파사라, 유펜치어칠중실내, 제제군신, 일불득왕.

강설: 당시 왕사성의 아사세라는 태자가 있었는데, 그는 품행이 불량하고 사악한 제바달다의 꾀에 빠져 부왕인 빈바사라왕을 일곱 겹으로 된 감옥에 감금하고 산 채로 굶겨 죽이고자 하였으며, 신하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면회마저 금지시켰다.

국태부인명위제희, 공경대왕, 조육청정, 이소밀화초용도기신, 제영락중, 성포도장, 밀이상왕.

강설: 왕의 부인인 위제희 왕후는 빈바사라왕을 공경하며 충심으로 극진히 모셨다. 아사세 태자가 국왕을 감금하고 굶겨 죽일 심산이었기에, 태자의 모친인 위제희 왕후는 깨끗이 목욕한 후 수유와 꿀을 볶은 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 보관 속에 포도즙을 넣어 몰래 빈바사라왕에게 올렸다.

이시대왕식초음장, 구수수구, 수구필이, 합장공경, 향기사굴산요례세존, 이작시언: 「대목건련시오친우, 원흥자비, 수아팔계.」 시목건련여응준비, 질지왕소, 일일여시, 수왕팔계. 세존역건존자부루나, 위왕설법.

강설: 그러자 빈바사라왕은 수유와 꿀을 볶은 밀가루와 반죽한 것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 후 물로 입 안을 씻어냈다. 입 안을 씻어낸 후 멀리 영취산을 향하여 공경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가장 친밀한 벗인 대목건련이시여, 부디 자비의 마음을 세우시어 저에게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수여해 주옵소서.” 그러자 곧 목건련이 독수리처럼 빈바사라왕이 유폐된 곳으로 날아와 빈바사라왕에게 ‘팔관재계’를 수여하였고, 이와 같이 하기를 날마다 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루나 존자를 보내시어 빈바사라왕을 위하여 설법하게 하셨다.

[편집자 주] 팔관재계(八關齋戒)

1. 살생하지 않는다.
2. 도둑질하지 않는다.
3. 사음하지 않는다.
4. 망언하지 않는다.
5.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꽃 장식을 머리에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지 않는다.
7. 높고 넓은 큰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즉 정오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여시시간, 경삼칠일, 왕식초밀, 득문법고, 안색화열.

강설: 이렇게 21 일이 지나자 빈바사라왕은 수유와 꿀을 볶은 밀가루와 반죽한 것을 먹고 설법을 듣고 불법을 수행한 덕분에 안색이 온화하고 즐거워졌다.

시아사세문수문자: 「부왕금자유존재야?」 시수문인백언: 「대왕! 국태부인 신도초밀, 영락성장, 지용상왕; 사문목련급부루나, 종공이래, 위왕설법, 불가금제.」 시아사세문차어이, 노기모왈: 「아모시적, 여적위반; 사문악인, 환혹주술; 영차악왕다일불사!」 즉집리검, 옥해기모.

강설: 이때 아사세가 찾아와 문지기에게 물었다. “부왕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 문지기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모친께서 수유와 꿀을 볶은 밀가루와 함께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 보관 안에 포도즙을 넣어 매일 빈바사라왕께 식사를 올렸으며, 사문인 목건련과 부루나가 공중에서 날아와 빈바사라왕을 위해서 설법하니, 저희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한 아사세는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며 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 교활한 늙은이와 어울렸으니 어머니는 역적입니다! 목건련을 비롯한 출가인은 모두 악인이며 샳된 주술로 이 늙은 왕을 수일 동안 현혹했기에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날카로운 검을 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다.

시유일신명왈월광, 총명다지, 급여기바, 위왕작례. 백언 : 「대왕 ! 신문 《비타론경》설, 겁초이래, 유제약왕, 탐국위고, 살해기부일만팔천, 미증 문유무도해모. 왕금위차살역지사, 오찰리종, 신불인문, 시전다라. 아등불의 복주어차.」

강설: 이때 총명하고 지혜가 깊은 신하인 ‘월광’이 어질고 뛰어난 명의인 ‘기바’와 함께 아사세에게 예를 올리고 충언을 고하였다. “대왕이시여, 신(臣)들이 듣건대 바라문 경전에 이르기를, 세상이 생긴 이래로 많은 흉악한 왕들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가 1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를 죽일 만큼 극악무도한 자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왕께서 전례를 깨고 천륜을 거슬러 모친을 죽이신다면 이는 고귀한 크샤트리아 왕족의 지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차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이런 일을 저지르신다면 이는 불가촉천민과 다를 바 없으니, 저희는 곁에 있지 않겠습니다.”

시이대신설차어경, 이수안검, 각행이퇴. 시아사세, 경포황구, 고기바언:「여 불위아야?」 기바백언:「대왕! 신막해모!」

왕문차어, 참회구구, 즉편사검, 지불해모. 칙어내관, 폐치심궁, 불령복출.

강설: 두 대신은 말을 마치고 검을 누르며 인사하고 물러갔다. 아사세는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며 다시 기바에게 물었다. “너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냐?” 기바가 다시 충언을 고하였다. “대왕이시여, 신중을 기하시어 부디 어머니를 해치지 마십시오.”

아사세가 이 말을 듣고 잘못을 참회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아사세는 곧 쥐고 있던 검을 버리고 어머니를 죽이려는 마음을 돌렸다. 그는 부하에게 자신의 모친인 위제희 왕후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시위제희, 피유페이, 수우초취, 요향기사굴산위불작례, 이작시언:「여래세존, 재석지시, 향견아난래위문아; 아금수우, 세존위중, 무유득견, 원견목련존 자아난여아상견.」 작시어이, 비읍우루, 요향불례.

강설: 감금된 위제희 왕후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날이 초췌해졌다. 그녀는 멀리 있는 영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다음과 같이 청했다. “여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항상 아난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에 싸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을 뵈는 것까지는 바라지 못하나 원하옵건대 목건련 존자와 아난 존자를 뵈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말씀을 마친 위제희 왕후는 비 오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멀리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오래도록 절을 올렸다.

미거두경, 이시세존재기사굴산, 지위제희심지소념, 즉칙대목건련급이아난종공이래.

불종기사굴산물, 어왕궁출. 시위제희레이, 거두견세존석가모니불, 신자금색, 좌백보연화, 목련시좌, 아난시우, 석범호세제천, 재허공중, 보우천화, 지용공양.

강설: 위제희 왕후가 절을 올리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위제희 왕후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곧 대목건련 존자와 아난 존자를 보내시니 이들이 순식간에 공중에서 날아왔다.

부처님 또한 영취산을 떠나 위제희 왕후의 왕궁에 나타나셨다. 이때 위제희 왕후가 큰절을 올리고 머리를 들어 뵈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은 자금색이고 백 가지 보배로 장식된 연꽃에 앉으셨는데,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의 왼쪽에, 아난 존자는 오른쪽에 서 있었으며, 제석(帝釋), 범천(梵天)을

비롯한 모든 하늘의 호법신들이 허공에서 곁을 호위하고 하늘 가득히 비가 내리듯 꽃을 흩뿌려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쳤다.

시위제희견불세존, 자절영락, 거신투지, 호읍향불, 백언: 「세존! 아속 하죄, 생차악자? 세존! 복유하등인연, 여제바달다공위권속? 유원세존, 위아광설무우뇌처, 아당왕생, 불락염부제탁악세야. 차탁악세, 지옥아귀 축생명만, 다불선취. 원아미래불문악성, 불견악인, 금향세존, 오체투지, 구애참회, 유원불력교아, 관어청정업처.」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 위제희 왕후는 서둘러 영락 보관을 비롯한 장식을 벗어 던진 후 오체투지로 큰절을 올리고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독한 자식을 낳았습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또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친척이 되셨습니까? 세존께서 저를 위하여 근심과 고뇌가 없는 곳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곳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이처럼 혼탁한 인간 세상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탁한 현실 세계에는 지옥과 아귀와 축생이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수많은 악한 중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악인을 보지 않는 세상에 환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존께 오체투지로 큰절을 올리오니 세존께서 저를 가없이 여기시어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태양과 같은 불법의 지혜로 제가 청정한 선업(善業)의 세계를 관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시, 세존방미간광, 기광금색, 편조시방무량세계, 환주불정, 화위금대, 여수미산; 시방제불정묘국토, 개어중현. 흑유국토, 칠보합성; 복유국토,

순시연화; 복유국토, 여자재천궁; 복유국토, 여파리경; 시방국토, 개어중현.  
유여시등무량제불국토, 엄현가관, 영위제희견.

강설: 위제희 왕후가 이 말씀을 올리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미간에서 빛줄기가 뿜어져나왔는데, 그 금빛 광명은 시방의 무량한 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수미산과 같은 금색의 좌대로 변하였다. 그 빛 속에는 각양각색의 불국정토가 보였는데 어떤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졌고, 어떤 국토는 연꽃처럼 아름다웠으며, 어떤 국토는 천왕(天王)의 궁전과 같이 웅장하였고, 또 어떤 국토는 맑고 투명한 수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무수한 불국정토의 장엄한 형상은 위제희 왕후가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시위제희백불언: 「세존! 시제불토, 수복청정, 개유광명; 아금락생극락세계, 아미타불소, 유원세존교아사유, 교아정수.」

강설: 이때 위제희 왕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정토가 비록 청정하기 그지없고 광명이 찬란하나, 저는 지금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극락세계에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시, 세존즉편미소, 유오색광, 종불구출, 일일광조빈바사라왕정. 이시, 대왕수재유폐, 심안무장, 요견세존, 두면작례, 자연증진성아나함.

강설: 이 말을 들으신 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곧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니, 부처님의 입에서 오색 빛이 나와 날날의 광명이 빈바사라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다. 당시 빈바사라왕이 비록 옥중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마음의

눈'은 가로막히지 않아 석가모니 부처님을 관상하고 오체투지로 공경하게 절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빈바사라왕의 공덕이 늘어나 곧 옥계의 번뇌를 모두 끊어내는 과위를 증득하였다.

[편집자 주] 아나함(阿那含): 소승불교의 네 가지 과(四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가운데 제 3 과이다.

이시, 세존고위제희: 「여금지불? 아미타불, 거차불원, 여당계염, 체관피국 정업성자. 아금위여광설중비, 역령미래세일체범부, 옥수정업자, 득생서방 극락국토.」

강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았는가? 아미타불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느니라. 그대는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서방극락세계의 성인(聖人)들을 진지하고 자세하게 관상하여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그 성취의 방법을 자세히 말해 주리라. 그대와 미래의 대중들 그리고 청정한 지혜를 닦고자 하는 이들이 장래에 서방극락세계에 쉽게 왕생할 수 있도록 하리라.”

「육생피국자, 당수삼복: 일자, 효양부모, 봉사사장, 자심불살, 수십선업; 이자, 수지삼귀, 구족중계, 불범위의; 삼자, 발보리심, 심신인과, 독송대승, 권진행자. 여차삼사, 명위정업.」

강설: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며, 스승을 존중하여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十善業)’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불, 법, 승의 삼보(三寶)에 귀의하며 갖가지 계율을 지키고, 수행자의

위엄과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발보리심, 즉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세우고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타인에게 수행 정진을 권하는 것이니, 이 세가지가 수행 성취의 초석이니라.”

[편집자 주]

1. 정업(淨業): ‘청정업’이라고도 부르며 청정한 선업(善業)을 뜻하는 동시에 ‘세복(世福)’, ‘계복(戒福)’, (行福)’의 삼복(福)을 가리킨다. 이 삼복은 중생의 불국정토 왕생을 위한 복이며 동시에 불국토를 정화하는 수행의 닦음이므로 이를 ‘정업’이라 불린다.

2. 십선업(十善業):

1. 살생하지 않는다. 2. 도둑질하지 않는다. 3. 사음하지 않는다. (음란한 일, 타인 및 가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입으로 업을 짓지 않는다. (악랄한 말을 하지 않는다.) 5.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이간질하지 않는다.) 6. 망언하지 않는다. (비방, 모욕, 사기, 날조하지 않는다.) 7. 말을 꾸며내지 않는다. (남을 해할 목적으로 감언이설하지 않는다.) 8.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9. 화를 내지 않는다. 10.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불고위제희: 「여금지불? 차삼종업, 내시과거, 미래, 현재 삼세제불, 정업정인.」**

**강설: 부처님께서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알겠느냐? 이 세 가지 행위가 바로 과거 · 미래 · 현재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룩하신 성취의 근본이자 기초이니라.”**

**불고아난급위제희: 「제청! 제청! 선사념지: 여래금자, 위미래세일체중생, 위번뇌적지소해자, 설청정업, 선재위제희, 쾌문차사.」**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새겨듣고 마음을 다해 체득하거라. 나는 지금 미래에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청정한 해탈의 방법을 말하리라. 장하도다, 위제희야.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 여당수지, 광위다중선설불어, 여래금자, 교위제희, 급미래세일체 중생, 관어서방극락세계, 이불력고, 당득견피청정국토. 여집명경, 자견 면상. 견피국토, 극묘락사, 심환희고, 응시즉득무생법인.」

강설: 아난아, 그대는 나의 말을 깊이 새기고 나의 설법을 널리 전하여라. 나는 지금 위제희와 미래 세상의 일체중생에게 서방극락세계를 관상하는 법을 전수하겠노라. 그대들은 불력(佛力)의 가피로 인하여 서방극락세계의 청정한 국토를 보게 되리라.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할 것이다. 서방극락세계의 온갖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마음 속에 환희가 일어난 연유로 곧 불생불멸의 청정한 지혜를 얻을 것이니라.”

불고위제희: 「여시범부, 심상이열, 미득천안, 불능원관, 제불여래유이 방편, 영여득견.」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범부(凡夫)라서 깨닫고 관상하는 능력이 모자라 천안통(天眼通)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멀리 펼쳐진 세계와 그 경지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모든 부처와 여래께서는 신비한 방편으로 네가 서방극락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겠느니라.”

시위제희백불언: 「세존! 여아금자, 이불력고, 견피국토; 약불멸후, 제중 생등, 탁악불선, 오고소핍, 운하당견아미타불극락세계?」

강설: 이때 위제희 왕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뢰었다.“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가 지금은 불력(佛力)의 가피를 받아 서방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사악하고 혼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일체중생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불고위제희: 「여급중생, 응당전심계념일처, 상어서방. 운하작상? 범작상자, 일체중생, 자비생맹, 유목지도, 개견일몰, 당기상념.」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중생들은 마땅히 오로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늘 서방극락세계를 관상하여라. 어떻게 관상해야 할 것인가? 태어나면서 장님이 아닌 모든 중생은 모두 해가 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떠올리며 관상하여라.”

「정좌서향, 제관어일욕몰지처, 영심견주, 전상불이, 견일욕몰, 상여현고. 기견일이, 폐목개목, 개령명료. 시위일상, 명왈초관.」

강설: “서쪽을 향하여 바르게 앉아 해가 지는 광경을 자세히 관상하여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확고히 하고 해가 지려 하는 것이 마치 매달아 놓은 큰북과 같은 모습임을 관상하여라. 해가 지는 형상을 관상한 후에는 눈을 감든 뜨든 그 광경을 명료히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해를 관상하는 ‘일상(日想)’이며 이를 ‘초관(初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차작수상, 견수징청, 역영명료, 무분산의. 기견수이, 당기빙상, 견빙영철, 작유리상. 차상성이, 견유리지, 내외영철, 하유금강, 철보금당, 경유리지.」

기당팔방팔릉구족, 일일방면, 백보소성. 일일보주, 유천광명. 일일광명. 팔만사천색, 영유리지, 여억천일, 불가구견. 유리지상, 이황금승, 잡측간착, 이칠보계, 분제분명. 일일보중, 유오백색광, 기광여화, 우사성월, 현처허공, 성광명대.]

강설: “이어서 물을 관상하여라(수상, 水想). 맑고 투명한 물을 보듯이 집중하여 진지하게 관상하라. 물을 관상한 후에는 그 물이 얼음으로 변하여 햇빛이 얼음을 뚫고 비치는 실제와 같은 광경을 관상하여라. 다음에는 그 얼음이 유리로 변하여 햇빛만 비쳐도 투명하게 반짝인다고 관상하라. 유리를 관상하였다면 유리로 된 땅 전체 안팎이 명하게 빛나는 모습을 관상하여라.

유리로 된 땅의 밑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기둥이 유리로 된 땅 전체를 받치고 있는데, 그 보배 기둥은 8 개의 모서리와 8 개의 면을 다 갖추고 있고, 각 면이 온갖 보석으로 가득 이루어져 있느니라. 보석마다 아름다운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빛줄기마다 아름다운 색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오색찬란한 빛이 유리로 된 땅을 투명하게 비추니, 마치 셀 수 없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 눈이 부서 볼 수가 없다.

유리로 된 땅의 위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줄로 각기 다른 길과 구역을 구분하고, 7 가지 보물로 유리 세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느니라. 날날의 보물에서는 오색찬란한 빛이 빛나고, 그 모든 빛이 아름다운 꽃과 같으며 또한 영롱한 별과 달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허공에 걸려 있어, 마치 허공 속에 빛나는 거대한 광명의 보대(寶臺)를 이루느니라.”

「누각천만, 백보합성, 어대양변, 각유백억화당, 무량악기, 이위장엄. 팔중 청풍, 종광명출, 고차악기, 연설고, 공, 무상, 무아지음.」

「시위수상, 명제이관.」

강설: 그 위에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천만 개의 아름다운 누각이 있으며, 거대한 보대의 양쪽은 각각 무수한 화당(花幢, 꽃의 깃대)과 무수한 악기(樂器)들이 공중에 흩날려 상서로운 아름다움을 장식하노라. 찬란한 광명 속에서 여덟 가지 청량한 바람이 불고 허공에 걸린 이 악기들이 스스로 연주를 하는데, 곧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미묘한 음(音)을 상징하노라.”

“이것이 수상(水想)이며, 이를 ‘제 2 관’이라고 한다.”

「차상성시, 일일관지, 극영료료. 폐목개목, 불영산실. 유제식시, 항억차사.」

「여차상자. 명위조건극락국지. 약득삼매, 견피국지, 요료분명, 불가구설.」

「시위지상, 명제삼관.」

강설: ‘수상(水想)’을 관상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차례대로 관상을 반복 연습하며, 모두 실제와 같은 광경을 관상하여라. 이때 눈을 감든 뜨든 모든 광경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이러한 관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고 나면, 극락세계를 대강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상이 무르익으면 이런 모습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며 실제와 같아지는데 말로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것이 곧 ‘지상(地想)’이며, 제 3 관이라고 한다.”

[편집자 주] 삼매(三昧):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극도로 몰입한 상태

불고아난: 「여지불어, 위미래세일체대중, 옥탈고자, 설시관지법. 약관시지자, 제팔십억겁생사지죄. 사신타세, 필생정국, 심득무의.」

「작시관자, 명위정관; 약타관자, 명위사관.」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의 뜻을 잘 깨우쳤다가 미래의 일체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이 ‘관지법(觀地法)’을 말해 주어라. 만일 그들이 이 방법대로 관상하고 익히면, 80 억 겁 동안의 생사의 큰 죄를 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벗어나면 반드시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 대자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방법대로 관상하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을 ‘사관(邪觀)’이라고 하느니라.”

불고아난, 급위제희: 「지상성이, 卍차관보수. 관보수자, 일일관지, 작칠중행수상. 일일수고팔천유순. 기제보수, 칠보화엽, 무불구족.」

강설: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지상(地想)을 이루고 나면, 다음에는 ‘보수관(寶樹觀)’을 시작하여라. 하나하나 자세히 관상하되 우선 보배 나무가 일곱 줄로 서 있다고 관상하여라.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가 8 천 ‘유순(由旬)’이며, 모든 보배 나무의 꽃과 잎은 모두 칠보(七寶)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나무가 각양각색의 보배를 갖추고 있느니라.”

[편집자 주] 유순(由旬): 고대 인도의 거리 단위, 황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일일화엽, 작이보색. 유리색중, 출금색광; 유리색중, 출홍색광; 마노색중, 출거거광; 거거색중, 출록진주광; 산호호박일체중보이위영식, 묘진주망미복수상. 일일수상, 유칠중망. 일일망간, 유오백억묘화궁전, 여범왕궁.」

강설: “송이마다 꽃잎마다 다양한 색채의 빛을 뽐고 있으며, 유리색에서는 황금색 광명이, 파리색(頗梨色)에서는 붉은색 광명이 비친다. 마노색(馬腦色)에서는 거거(磗磗)의 흰색 광명이, 거거색(磗磗色)에서는 녹색 진주의 광명이 비치었다. 나무에는 산호, 호박 등 수많은 보물이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비추어 장식하느니라. 정교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덮고, 한 그루의 나무 위마다 일곱 겹의 그물이 덮여 있으며, 그물 사이마다 5 백억 채의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 범천왕궁(梵天王宮)과도 같으니라.”

「제천동자, 자연재중. 일일동자오백억석가비룽가마니이위영락. 기마니광, 조백유순, 유여화합백억일월불가구명. 중보간착, 색중상자, 차제보수, 행행상당, 엽엽상차. 어중엽간생제묘화, 화상자연유칠보과. 일일수엽, 종광정등이십오유순. 기엽천색, 유백종화여천영락, 유중묘화, 작염부단금색. 여선화륜, 완전엽간, 용생제과, 여제석병.」

강설: “천왕궁 안에는 천상의 동자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동자들 모두 여러 마니보주를 걸고 있는데, 그 보주의 광명이 100 유순을 널리 비추는데 무수한 해와 달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라. 그 수많은 보배들이 아름다운 빛과 색을 발하며 서로 어우러지니 모든 색 중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으뜸이니라.

신비하고 기묘한 보배 나무들은 행렬을 맞춰 줄을 서고, 겹겹이 쌓인 잎은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그 층층이 쌓인 잎들 사이에는 갖가지 미묘한 꽃이 피고, 꽃송이마다 서로 다른 색의 칠보 열매가 열려 있느니라. 각각의 나뭇잎 길이는 25 유순이고, 모든 잎마다 아름다운 색과 다채로운 그림이 가득하니, 마치 하늘의 영락 장식과도 같으니라. 황금색을 띤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잎들 사이에서 불바퀴처럼 원을 그리며 돌고, 그 사이에서 온갖 기이한 열매가 맺혀 솟아나오니, 그 형상이 마치 ‘제석병(帝釋瓶)’과도 같으니라.

[편집자 주]

1. 마니보주(摩尼寶珠): 제석천왕의 목에 걸린 야명보주, 33 일 동안 불광을 두루 비춘다(도리천).
2. 염부단금(閻浮檀金): 염부나무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사금(沙金), 적황색에 자줏빛의 윤이 나며,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으로 손꼽힌다.
3. 제석병(帝釋瓶):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오는 제석천왕의 보병(寶瓶).

「유대광명, 화성당번, 무량보개. 시보개중, 영현삼천대천세계, 일체불사. 시방불국, 역어중현. 견차수이, 역당차제일일관지, 관견수경, 지엽, 화과, 개령분명.」

「시위수상, 명제사관.」

강설: “또 하나의 광명이 무량한 당번과 보개가 되었는데, 이 보개 속에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자비가 마치 영화처럼 나타나니, 시방불국(十方佛國, 동서남북과 상하 허공의 모든 불국)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이와 같은 관상을 이룬 후에는 다시 이러한 광경을 하나하나 익숙하고 분명하게 또한 실제와 같이 관상하여라. 그리하면 나무의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를 더욱 분명하게 실제처럼 관상하기 쉬울 것이니라.”

“이것이 ‘수상(樹想)’이며 ‘제 4 관’이라고 한다.”

「차당상수, 옥상수자, 극락국토, 유팔지수.」

「일일지수, 칠보소성. 기보유연, 종여의주왕생, 분위십사지, 일일지작, 칠보 묘색, 황금위거, 거하개이잡색금강, 이위저사. 일일수중, 유육십억칠보연화, 일일연화, 단원정등십이유순. 기마니수류주화간, 심수상하.」

강설: “이어서 물을 관상하되, 서방극락세계에 있는 ‘팔지수(八池水)’를 관상하여라”

“이 연못의 물은 칠보로 이루어져 부드럽고 유연하며, 모두 여의주왕(如意珠王)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 물은 14 개 줄기로 나누어져 있고, 각 줄기마다 자연스레 칠보의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으며, 황금으로 만들어진 개울의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금강 보석이 깔려 있느니라. 각 개울마다 칠보로 된 60 억 송이의 연꽃이 있고, 각 연꽃의 원 둘레 길이가 12 유순 이니라. 그 마니보주에서 나오는 물은 연꽃 사이로 흐르고, 보배 나무 위아래 전체를 적신다.”

「기성미묘, 연설고, 공, 무상, 무아제바라밀; 복유찬탄제불상호자. 여의주 왕용출금색미묘광명, 기광화위백보색조, 화명애아, 상찬염불, 염법, 염승.」

「시위팔공덕수상, 명제오관.」

강설: “흐르는 물은 미묘하고 신기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곧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미묘한 경지를 연설하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과 장엄함을 찬탄하느니라. 여의주왕으로부터 금색의 미묘한 광명이 솟아 나오고, 그 광명이 변화하여 온갖 보배와 같은 색깔의 새가 되어 부드럽고 우아하게 지저귀며, 그 지저귀는 속에 항상 불, 법, 승을 찬탄하느니라.”

“이것이 ‘팔공덕수상(八功德水想)’이며, 이를 ‘제 5 관’이라고 한다.”

「중보국토, 일일계상, 유오백억보루. 기루각중, 유무량제천, 작천기악, 우유 악기, 현처허공, 여천보당, 불고자명. 차중음중, 개설염불, 염법, 염비구승.」

「차상성이, 명위조건극락세계, 보수, 보지(地), 보지(池).」

「시위총관상, 명제육관.」

강설: “수많은 보배로 이루어진 국토의 각 구역 위에는 5 백억 개의 보배 누각이 세워져 있으니, 그 누각 안에서 무량한 천인들이 천상의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한 그 악기들은 보개와 같이 허공에 매달려 있으며, 사람이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연주하는데, 그 음악은 모두 불, 법, 승을 염송하느니라.”

“이러한 관상을 이루고 나면 극락세계, 보배 나무, 보배 땅, 보배 연못을 대강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총관상(總觀想)’이며 이를 ‘제 6 관’이라고 한다.”

「약견차자, 제무량억겁극중악업, 명종지후, 필생피국. 작시관자, 명위정관; 약타관자, 명위사관.」

강설: 이와 같은 관상의 경지를 닦은 사람은 무량억 겁 동안의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소멸할 수 있고, 생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이 올바른 관상이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니라.”

불고아난, 급위제희: 「제청제청, 선사염지, 오당위여분별해설, 제고뇌법; 여등억지, 광위대중분별해설.」

설시어시, 무량수불주립공중, 관세음, 대세지, 시이대사, 시립좌우. 광명 치성, 불가구견, 백천염부단금색, 불득위비.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분별하여 설명할 것이니, 너희는 이를 잘 기억하였다가 중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라.”

바로 이때 무량수불께서 공중에 머물러 계셨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의 양측에 서서 대광명을 비추셨다. 그 광명이 너무도 눈부셔 모든 이가 분명히 볼 수 없었으니, 백천 가지 염부단금 금빛 광명조차 이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편집자 주] 무량수불(無量壽佛):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이르는 말

시위제희, 견무량수불이, 접촉작례, 백불언: 「세존! 아금인불력고, 득견 무량수불, 급이보살, 미래중생, 당운하관무량수불급이보살?」

불고위제희: 「육관피불자, 당기상념, 어칠보지상, 작연화상.」

강설: 이때 위제희 왕후가 무량수불을 뵈고 나서 몸을 숙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을 가볍게 떠받치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절을 올린 후 위제희 왕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불력(佛力)의 가피 덕분에 무량수불과 두 보살님을 뵈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중생은 어떻게 해야 무량수불과 두 보살님을 뵈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을 뵈고자 하는 사람은 칠보로 된 땅 위의 연꽃을 관상하여라.”

「영기연화, 일일엽상, 작백보색. 유팔만사천맥, 유여천화. 맥유팔만사천광, 요료분명, 개영득견. 화엽소자, 종광이백오십유순. 여시연화, 구유팔만사천엽; 일일엽간, 유백억마니주왕이위영식. 일일마니주, 방천광명, 기광여개, 칠보합성, 편복지상.」

강설: “연꽃의 각 꽃잎마다 온갖 보배와 같은 아름다운 색을 내는 것을 관상하여라. 모든 꽃잎마다 8만 4천 개의 잎맥이 있어 천연의 그림과도 같고, 잎맥마다 찬란한 광명을 비추는데 빛마다 분명하게 보였느니라. 작은 연꽃일지라도 그 크기가 250 유순이나 되며, 연꽃에는 8만 4천 개의 연잎이 있고, 연잎 사이에는 백억 개의 마니주왕이 장식되어 있느니라. 모든 마니보주마다 대광명을 비추고 그 광명이 무량한 보개와 같은데 보개는 칠보로 이루어져, 극락의 대지 위를 두루 덮고 있느니라.”

「석가비릉가보, 이위기대, 차연화대, 팔만금강진속가보, 범마니보. 묘진주망, 이위교식.」

「어기대상, 자연이유사주보당, 일일보당, 여백천만억수미산, 당상보만, 여야마천궁, 복유오백억미묘보주, 이위영식. 일일보주, 유팔만사천광, 일일광작팔만사천이종금색. 일일금색, 편기보토, 처처변화, 각작이상. 흑위금강대, 흑작진주망, 흑작잡화운, 어시방면, 수의변현, 시작불사.」

「시위화좌상, 명제칠관.」

강설: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화대에는 팔만 개의 금강 보석, 붉은 보석, 범천마니보주와 아름다운 진주 그물로 장식되어 있느니라.”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네 개의 기둥으로 된 보배 당번이 세워져 있으니, 각각의 보배 당번은 그 크기가 백천만억 개의 수미산과 같고, 그 당번 위의 보배 휘장은 무한히 펼쳐진 밤하늘과 같으며, 또한 무수한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도 같으니, 5 백억 개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장식 하였느니라. 보배 구슬마다 무한한 광명이 빛나고, 각각의 광명마다 온갖 금빛을

뿜는다. 날날의 금빛이 두루 극락의 보배 땅 위에 뿌려져 수시로 각각 다른 형상으로 변하느니라. 금강대(金剛臺) 형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주 그물이 되기도 하며, 또한 갖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러한 광명이 모든 방향에서 뜻하는 대로 변화하여 자비롭고 청정하고 자재로운 상태를 드러내느니라.”

“이것이 ‘화좌상(華座想)’이며, 이를 ‘제 7 관’이라고 한다.”

불고아난: 「여차묘화, 시본법장비구원력소성. 약욕염피불자, 당선작차화 좌상. 작차상시, 불득잡관, 개응일일관지, 일일엽, 일일주, 일일광, 일일대, 일일당, 개령분명. 여어경중, 자견면상. 차상성자, 멸제오만억겁생사지죄, 필정당생극락세계.」

「작시관자, 명위정관; 약타관자, 명위사관.」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기묘한 꽃은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무량수불을 관상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화좌상(華座想)’을 관상하여야 하느니라.”

“이러한 관상을 할 때는 다른 관상을 하지 말고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되게 , 하나하나 자세히 관상해야 하느니라. 하나의 잎, 하나의 보배 구슬, 하나의 광명, 하나의 연화대, 하나의 보배 당번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관상하여라. 이러한 관상을 이루고 나면 5 만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멸할 수 있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상하는 것을 ‘사관(邪觀)’이라고 하느니라.”

[편집자 주] 법장비구(法藏比丘): 아미타불이 성불하기 전 출가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당시의 법명.

불고아난, 급위제희: 「견차사이, 차당상불. 소이자하? 제불여래, 시법계신, 입일체중생심상중.」

「시고여등, 심상불시, 시심즉시삼십이상, 팔십수형호, 시심작불, 시심시불. 제불정편지해, 종심상생, 시고응당일심계념, 제관피불,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막삼불타.」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관상을 이룬 후에는 부처님을 관상해야 하느니라. 왜 그러한가? 모든 부처와 여래는 바로 법계신(法界身)이므로 일체중생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곧 ‘32 상 80 종수형호’와 같으니라. 마음이 부처가 되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니라. 모든 부처님은 모르는 바가 없으시고, 지혜는 바다와 같고, ‘정지정견(正知正見)’을 갖추셨으니, 이는 모두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진지하게 무량수불을 관상하여 부처님과 같은 정지정견을 얻어야 하느니라.”

[편집자 주]

1. 32 상 80 종수형호(三十二相, 八十隨形好): 부처님의 몸에 갖춘 다양하고 아름다운 특징적인 형상.

2. 다타아가도(多陀阿伽度), 아라하(阿羅訶), 삼막삼불타(三藐三佛陀): 부처님의 또 다른 3 가지 명호인 여래(如來), 응공(應供), 정등정각(正等正覺).

「상피불자, 선당상상, 폐목개목, 견일보상, 여염부단금색, 좌피화상. 견상좌이, 심안득개, 요료분명. 견극락국, 칠보장엄, 보지(地)보지(地) , 보수행렬, 제천보만, 미복기상, 증보라망, 만허공중. 견여차사, 극영명료, 여관장중.」

강설: “무량수불을 관상하는 사람은 먼저 무량수불의 보배 불상을 관상하여라. 눈을 감든 뜨든 칠보의 장엄한 불상이 금빛 광명을 비추며 연꽃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관상해야 한다. 불상과 연꽃 보좌를 관상하고 나면, 심안이 열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명료하고 분명할 것이니라. 전체 극락세계는 칠보로 장식되어 있어 지극히 장엄하고 고귀하며, 보배 땅이나 보배 연못이든 줄지어 늘어선 보배 나무이든 모두 모든 천상의 보배 휘장들이 그 위를 덮고 있으며 모든 진주 그물이 모든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느니라. 관상은 손안의 물건을 보듯이 분명하고 진실되며 명료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하라.”

[편집자 주] 심안(心眼): 마음의 시각적 능력, 상상의 능력, 관상의 창조력을 뜻한다.

「견차사이, 복당경작일대연화, 재불좌변, 여전연화, 등무유이. 복작일대 연화, 재불우변. 상일관세음보살상, 좌좌화좌, 역작금색, 여전무이, 상일 대세지보살상, 좌우화좌.」

강설: “이러한 관상을 이루고 난 후 다시 부처님의 왼쪽에 큰 연꽃이 피어 있는 것을 관상하여라. 그 연꽃은 앞에서 관상한 연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 하나의 큰 연꽃이 부처님의 오른편에 있다고 관상하여라. 그리고 한 분의 관세음보살상이 부처님 왼편의 연화좌에 앉아서 온몸에 금빛을 두르고 있음을 관상하고, 다시 한 분의 대세지보살상(大勢至菩薩像)이 부처님 오른편의 연화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관상하여라.”

「차상성시, 불보살상, 개방광명, 기광금색, 조제보수. 일일수하, 역유삼연화, 제연화상, 각유일불이보살상, 편만피국.」

강설: “이와 같은 관상이 이루어지면 불보살상이 모두 금빛 광명을 발하여 모든 보배 나무를 비추느니라. 각각의 보배 나무마다 아래에 또 세 개의 연꽃이 있으며, 모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분의 부처님상과 두 분의 보살상이 있어 극락 불토를 가득 채우느니라.”

「차상성시, 행자당문수류광명, 금제보수, 부안원앙, 개설묘법. 출정입정, 향문묘법, 행자소문, 출정지시, 억지불사, 영여수다라합. 약불합자, 명위망상; 약여합자, 명위조상견극락세계.」

「시위상상, 명제팔관.」

「작시관자, 제무량억겁생사지죄, 어현신중, 득염불삼매.」

강설: “이러한 관상을 이룬 후에 수행자는 흐르는 물, 광명, 모든 보배 나무, 물오리, 기러기와 원앙이 모두 미묘한 불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다고 관상하여라. 수행자는 선정에 들었을 때나 나왔을 때나 항상 그 불가사의한 불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니라. 수행자가 들은 미묘한 불법은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도 빠짐없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였다가 경전과 서로 맞는지 대조하여야 하느니라. 경전과 맞지 않는다면 이는 곧 망상(妄想)이며 올바르지 않고, 경전과 같다면 대략 극락세계를 관상한 것이니라.”

“이와 같은 관상이 ‘상상(像想)’이며, 이를 ‘제 8 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관상하면 무량억 겁의 생사의 대죄를 사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관상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경지를 증득하는 것과 같으니라.”

불고아난, 급위제희: 「차상성이, 차당경관무량수불, 신상광명. 아난당지! 무량수불, 신여백천만억야마천염부단금색, 불신고육십만억나유타항하사 유순, 미간백호, 우선완전, 여오수미산; 불안여사대해수, 청백분명. 신제 모공, 연출광명, 여수미산. 피불원광, 여백억삼천대천세계, 어원광중, 유백 만억나유타항하사화불. 일일화불, 역유중다무수화보살, 이위시자.」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졌으면 다음에는 더더욱 무량수불의 몸의 광명을 관상하여라. 아난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무량수불의 몸은 그 키가 불가사의할 만큼 거대하며 온몸에는 자금색이 드리워져 있느니라. 미간의 백호(白毫)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마치 다섯 개의 수미산처럼 거대하고, 부처님의 눈은 4 대해(四大海)의 물처럼 흑백이分明하며,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 같은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아미타불의 지혜의 원광(圓光)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정수리 주위에 둥글게 빛나는 원광 속에는 불가사의하고 무량한 화신불이 계시느니라. 각각의 화신불 곁에도 무수한 화신 보살들이 시자(侍者)로서 계시느니라.”

「무량수불, 유팔만사천상; 일일상중, 각유팔만사천수형호; 일일호중, 복팔만사천광명; 일일광명, 편조시방세계염불중생, 섭취불사.」

강설: “무량수불은 팔만 사천 가지의 용모 특징을 갖췄으며, 모습마다 무한한 상서로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여 무한한 광명을 비추느니라. 낱낱의 광명이 시방세계의 염불 중생을 두루 비추고, 어느 중생도 버리지 않고 광명 속에 품느니라.”

「기광명상호급여화불, 불가구설. 단당역상, 영심안견, 견차사자, 즉견시방 일체제불. 이견제불고, 명염불삼매.」

강설: “아미타불이 비추는 광명의 아름다운 형상과 무수한 화신불은 세세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관상할 때마다 부처님을 관상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러한 관상을 이룬 사람은 모든 부처님을 본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을 관상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경지이니라.”

「작시관자, 명관일체불신; 이관불신고, 역견불심; 불심자, 대자비사; 이무연 자섭제중생.」

강설: “수행이 이 관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을 ‘관일체불신(觀一切佛身)’이라 하며,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였으므로 이는 곧 부처님의 마음을 본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마음은 곧 대자대비이다. 부처님은 무연무고(無緣無故)의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보살피시느니라.”

「작차관자, 사신타세, 생제불전, 득무생인. 시고지자, 응당계심, 체관 무량수불.」

강설: “이러한 관상을 하는 수행자는 인간 세상을 떠난 후 곧 자연히 부처님 앞에 태어나 불생불멸의 근본적인 청정한 지혜를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수행자는 마음과 뜻을 집중하여 진지하고 자세하게 무량수불을 관상해야 하느니라.”

「관무량수불자, 종일상호입, 단관미간백호, 극영명료. 견미간백호상자, 팔만사천상호, 자연당현. 견무량수불자, 즉견시방무량제불. 득견무량제불고, 제불현전수기.」

강설: “무량수불을 관상하는 방법은 한 가지 상호(相好)로부터 시작하는데, 부처님 미간의 백호(白毫)를 관상하되 그 관상이 명료하고 진실할수록 좋다. 미간의 백호를 관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다른 형상적 특징들도 자연히 보이게 되느니라. 미간 백호를 관상할 수 있는 수행자는 자연히 8만 4천 종류의 상호를 모두 관상할 수 있다. 무량수불을 관상할 수 있는 수행자는 곧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부처님을 관상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친히 그 사람 앞에 현신하시어 ‘수기(授記)’를 내리시느니라.”

[편집자 주] 수기(授記): 부처님 또는 보살, 아라한, 고승이 수행자에게 미래에 얻게 될 성취, 과위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 내리는 예언과 약속.

「시위편관일체색신상, 명제구관. 작시관자, 명위정관; 약타관자, 명위사관.」

강설: “이것이 곧 ‘편관일체색신상(徧觀一切色身相)’이며, 이를 ‘제 9 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이 올바른 관상이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니라.”

불고아난, 급위제희: 「견무량수불, 요료분명이, 차역응관관세음보살, 차보살신장팔십만억나유타유순, 신자금색, 정유육계, 향유원광, 면각백천유순. 기원광중, 유오백화불, 여석가모니. 일일화불, 유오백화보살, 무량제천, 이위시자. 거신광중, 오도중생, 일체색상, 개어중현.」

강설: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무량수불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았다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관세음보살은 키가 80 만억 나유타 유순이고 몸은 자금색이며 정수리에 육계(肉髻)가 있고, 목 뒤에는 지혜의 원광이 있는데 그 원광이 주위에 비치는 범위가 거대하느니라. 그 원광 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5 백 분의 화신불이 계시며, 각각의 화신불 곁에는 5 백 분의 화신 보살과 무수한 모든 천신들이 시자(侍者)로서 계시느니라. 또한 ‘오도중생(五道衆生)’의 모든 색(色)과 상(相)이 관세음보살의 온몸의 광명 속에 나타나느니라.”

[편집자 주] 오도중생(五道衆生): 육도중생(六道衆生)과 대체로 비슷하며 천도(天道), 인도(人道), 축생도(畜生道), 아귀도(餓鬼道), 지옥도(地獄道)를 포함한다.

「정상비릉가마니보, 이위천관. 기천관중, 유일입화불, 고이십오유순. 관세음보살, 면여염부단금색, 미간호상, 비칠보색, 유출팔만사천종광명. 일일광명, 유무량무수백천화불. 일일화불, 무수화보살이위시자, 변현자재, 만시방세계.」

강설: “관세음보살의 정수리 위에는 천왕야명주로 만들어진 천관(天冠)이 있고, 그 천관 위에 한 분의 불상이 서 계시는데 그 높이가 25 유순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미묘한 자금색을 띠고, 미간의 백호는 보배의 광명을 비추며, 그 광명 속에서 미묘한 광채가 흘러나오느니라. 각각의 광명 속에 무량한 화신불이 계시며, 모든 화신불 곁에 무수한 화신 보살이 시자(侍者)로서 계시느니라. 화신불과 화신보살은 뜻하는 대로 변화하며 온세상을 가득 채우느니라.”

「비여홍연화색, 유팔십억미묘광명, 이위영락. 기영락중, 보현일체제장엄사. 수장작오백억잡연화색, 수십지단, 일일지단, 유팔만사천화, 유여인문. 일일화유팔만사천색, 일일색유팔만사천광, 기광유연, 보조일체. 이차보수, 접인중생.」

강설: “관세음보살의 팔은 연꽃처럼 분홍색을 띠고 오색찬란한 보배 구슬이 아름다운 빛과 색을 비추며 보살의 장엄함을 더한다. 보살의 손바닥 또한 연꽃의 분홍색을 띠고, 손가락 손끝마다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그림마다 무수히 아름다운 빛과 색을 발하며, 그 부드러운 빛과 색은 일체 인연 중생을 두루 비추니, 보살은 그 보배의 손으로 중생들을 맞이하여 이끌어 주시느니라.”

「거족시, 족하유천복륜상, 자연화성오백억광명대; 하족시유금강마니화, 포산일체, 막불미만.」

강설: “보살이 발을 들어 걸을 때에는 발바닥에 있는 천 폭의 커다란 바윗살 무늬가 자연히 5 백억 개의 광명 보대(寶臺)로 변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며, 발을 디딜 때마다 아름다운 금강 마니꽃이 몸 주위에 흩날리느니라.”

「기여신상, 중호구족, 여불무이. 유정상육계, 급무견정상, 불급세존.」

강설: “보살의 몸은 훌륭한 모습을 완벽히 다 갖추어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정수리의 육계와 무견정상(無見頂相)만이 부처님의 원만함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편집자 주] 무견정상(無見頂相): 부처님 몸의 형상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지혜와 자비는 거대하며, 모든 공덕을 온전히 갖추시었다. 머리 위에서 비추는 광명이 지극히 거대하여 부처님의 정수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시위관관세음보살진실색신상. 명제십관.」

강설: “이러한 관상이 ‘관관세음보살진실색신상(觀觀世音菩薩眞實色身想)’이며, 이를 ‘제 10 관’이라고 한다.”

불고아난: 「약육관관세음보살자, 당작시관. 작시관자, 불우제화, 정제업장, 제무수겁생사지죄. 여차보살, 단문기명, 획무량복, 하황제관?」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을 관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상하여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여 무수 겁 동안 지은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신성한 대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곧 무량한 복덕을 얻는데, 하물며 진지하고 자세하게 관상하면 어떠하겠느냐?”

「약유육관관세음보살자, 선관정상육계, 차관천관, 기여중상, 역차제관지, 실영명료, 여관장중. 작시관자, 명위정관; 약타관자, 명위사관.」

강설: “관세음보살 관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보살의 정수리 위에 있는 육계를 관상하고, 이어서 보살의 천관을 관상한 다음에 차례대로 몸의 나머지 모습들을 자기 손바닥을 보듯 분명하고 명료해질 때까지 관상하여라. 이러한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이 올바른 관상법이며, 다른 방법으로 관상하는 것은 잘못된 관상이니라.”

「차관대세지보살, 차보살신량대소, 역여관세음, 원광면각백이십오유순, 조이백오십유순. 거신광명, 조시방국, 작자금색. 유연중생, 개실득견. 단견차보살, 일모공광, 즉견시방무량제불, 정묘광명. 시고호차보살명무변광.」

강설: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보살의 몸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으니라. 그 원광은 125 유순이며, 널리 250 유순을 비추느니라. 자금색 몸에서 비추는 대광명으로 시방 국토를 두루 비추니, 인연이 있는 일체중생은 모두 이 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이 보살의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볼 수 있어도 곧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정묘(淨妙)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보살을 ‘무변광(無邊光)’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지혜광, 보조일체, 영리삼도, 득무상력. 시고호차보살, 명대세지.」

강설: “대세지보살이 지혜의 빛으로 모두를 비추며 인연 있는 중생이 삼악도(三惡道)을 벗어나 무한한 지혜를 얻게 하므로 이 보살을 ‘대세지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편집자 주] 삼도(三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를 포함하는 ‘삼악도(三惡道)’를 이르는 말.

「차보살천관, 유오백보화. 일일보화, 유오백보대. 일일대중. 시방제불정묘국토, 광장지상, 개어중현. 정상육계, 여발두마화. 어육계상, 유일보병, 성제광명, 보현불사.」

「제여신상, 여관세음, 등무유이.」

강설: “이 보살의 천관에는 500 송이의 활짝 핀 보배 연꽃이 있고, 모든 연꽃에는 500 개의 연대(蓮臺)가 있으며, 각각의 연대에는 시방불국의 광활한 정묘(淨妙) 국토가 나타나느니라. 대세지보살의 정수리 위의 육계는 붉은 연꽃과 같고, 육계 위에 광명이 가득 담긴 보병은 부처님의 자비와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느니라.”

“대세지보살의 나머지 몸의 모습은 관세음보살과 같아 차이가 없느니라.”

「차보살행시, 시방세계, 일체진동, 당지동처, 유오백억보화. 일일보화, 장엄고현, 여극락세계. 차보살좌시, 칠보국토, 일시동요.」

강설: “이 보살이 걸을 때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며, 땅이 움직이는 곳마다 500 억 송이의 보배 꽃이 피어나고, 모든 보배 꽃이 장엄하고 아름다우니,

마치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이 보살이 앓을 때는 칠보 국토가 이로 인해 진동하느니라.”

「종하방금광불찰, 내지상방광명왕불찰, 어기중간, 무량진수분신무량수불, 분신관세음, 대세지, 개실운집극락국토, 측새공중, 좌연화좌, 연설묘법, 도고중생.」

「작차관자, 명위관견대세지보살, 시위관대세지색신상. 관차보살자, 명제 십일관.」

강설: “서방극락세계 아래의 금광불국(金光佛國)으로부터 위쪽의 광명왕불국(光明王佛國)에 이르기까지, 그 위아래 사이에는 무량수불의 무수한 분신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무수한 분신들이 극락세계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극락세계의 허공을 가득 메우며, 연화좌에 앉아서 미묘한 법을 설하고 고해(苦海)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니라.”

“이러한 관상을 ‘관견대세지보살(觀見大勢至菩薩)’이라 하며, 또한 ‘관대세지색신상(觀大勢至色身相)’이라 한다. 대세지보살 관상을 수행하는 것을 ‘제 11 관’이라 한다.”

「제무수겁아승기생사지죄, 작시관자, 불처포태, 상유제불정묘국토.」

「차관성시, 명위구족관관세음급대세지.」

강설: “이러한 관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량무수 겁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미래에 다시 태어날 때 태아로 태어날 필요 없이 순식간에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노닐게 되느니라.”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지면 이를 곧 ‘구족관관세음, 대세지’라고 한다.”

[편집자 주]: 처포태(處胞胎):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견차사시, 당기자신생어서방극락세계, 어연화중, 결가부좌, 작연화합상, 작연화개상.」

강설: “그다음으로 수행자는 자신이 서방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태어나 그 연꽃 속에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관상하여라. 연꽃이 닫혀 있다고 관상한 후에 연꽃이 피는 관상을 하여라.”

「연화개시, 유오백색광, 내조신상, 안목개상, 견불보살, 만허공중. 수조수림, 급여제불소출음성, 개연묘법, 여십이부경합.」

강설: “연꽃이 피어날 때는 5 백 가지 미묘한 색의 빛이 연꽃 속에 있는 수행자의 몸을 비추고, 연꽃 속의 수행자는 눈을 뜨는 순간 부처님과 보살이 허공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게 되느니라. 물, 새, 숲 그리고 모든 부처와 보살이 소리 내어 묘법을 설하는데, 그 설법이 불경의 이치와 완전히 일치 하느니라.”

「약출정지시, 억지불실, 견차사이, 명견무량수불극락세계.」

## 「시위보관상, 명제십이관.」

강설: 관상을 하는 자가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관상한 광경을 잊지 않고 빠짐없이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이를 ‘견무량수불극락세계(見無量壽佛極樂世界)’라고 한다.”

“이러한 관상을 ‘보관상(普觀想)’이라 하며, 이를 ‘제 12 관’이라고 한다.”

## 「무량수불, 화신무수, 여관세음, 급대세지, 상래지차, 행인지소.」

강설: “무량수불은 무수한 화신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함께 그 수행자가 있는 곳으로 자주 찾아와 그를 이롭게 하느니라.”

[편집자 주] 행인(行人): 현재 불법을 수행하며 이 경전을 듣는 수행자를 뜻한다.

불고아난, 급위제희: 「약육지심, 생서방자, 선당관어일장육상, 재지수상, 여선소설, 무량수불, 신량무변, 비시범부심력소급. 연피여래숙원력고, 유역상자, 필득성취. 단상불상, 득무변복, 황복관불, 구족신상?」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한 마음으로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진실한 원이 있다면, 먼저 1 미터 86 센티미터의 무량수불 불상이 칠보 연못 위에 있는 모습을 관상하여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량수불의 몸은 끝없이 높고 거대하므로 범부의 마음으로는 관상하기 어려우나.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원력의 가피 도움으로 이와 같이 불상을 관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성취를 이루느니라. 1 미터 86 센티미터 높이의 불상만 관상해도 무량한 복덕을

얻는데, 하물며 높고 거대하며 구족한 부처님의 신상(身相)을 진지하게 관상하면 어떠하겠느냐?”

「아미타불, 신통여의, 어시방국, 변현자재. 흑현대신, 만허공중; 흑현 소신, 장육팔척; 소현지형, 개진금색. 원광화불, 금보연화, 여상소설.」

강설: “아미타불의 신통력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재하여 시방의 모든 국토에 뜻대로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때로는 거대하고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허공을 가득 채우고, 때로는 1미터 86센티미터의 작은 몸으로 현신하시느니라. 아미타불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형상이 모두 진금색(眞金色)이며, 그 원광 속의 화신불과 보배 연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관세음보살, 급대세지, 어일체처, 신동중생. 단관수상, 지시관세음, 지시대세지, 차이보살조아미타불보화일체.」

「시위잡상, 명제십삼관.」

강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시로 모든 시공간에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그 형상이 중생과 차별이 없다. 두 보살의 머리와 두관(頭冠)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 관세음보살인지 대세지보살인지 알 수 있느니라. 이 두 보살이 아미타불을 도와 일체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것이 ‘잡상(雜想)’이며, 이를 ‘제 13 관’이라고 한다.”

불고아난, 급위제희: 「범생서방유구품인. 상품상생자, 약유중생원생 피국자, 발삼종심, 즉편왕생. 하등위삼? 일자지성심, 이자심심, 삼자회향발원심; 구삼심자, 필생피국.」

강설: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수행자는 총 9 품(品)으로 나뉘느니라. 상품상생자(上品上生者)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진심과 정성, 확고한 의지, 수행한 공덕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에 회향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복유삼종중생, 당득왕생. 하등위삼? 일자자심불살, 구제계행; 이자독송 대승방등경전; 삼자수행육념. 회향발원, 원생피국; 구차공덕, 일일내지칠일, 즉득왕생.」

강설: “또한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어떤 세 종류인가? 첫째는 자비심을 갖추고 살생하지 않으며 계율을 엄수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늘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육념(六念)’을 수행하고 번뇌로부터 해탈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온갖 공덕을 쌓고 소망을 성취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느니라. 이러한 공덕을 갖춘 사람이 갈 때가 되면 하루 내지 이레 안에 곧 왕생할 수 있느니라.”

[편집자 주]

1. 대승경전(大乘經典): 자신이 먼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며(自覺覺他, 자각각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교 경전.
2. 육념(六念)

염불(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수행  
염법(念法):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수행  
염승(念僧): 부처님의 승단을 생각하는 수행  
염계(念戒):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는 수행  
염시(念施): 보시를 생각하는 수행  
염천(念天): 가장 깨끗하며 선한 공덕이 있는 하늘을 생각하는 수행

「생피국시, 차인정진용맹고, 아미타여래, 여관세음, 대세지, 무수화불, 백천 비구, 성문대중, 무량제천, 칠보궁전, 관세음보살, 집금강대, 여대세지보살, 지행자전, 아미타불방대광명, 조행자신, 여보살수수영접. 관세음, 대세지, 여무수보살, 찬탄행자, 권진기심.」

강설: “수행자가 극락세계에 이르고자 할 때는 용맹하게 정진한 까닭으로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무수한 화신불, 무수한 비구, 성문대중(聲聞大衆), 무량한 모든 천신, 천인, 칠보 궁전과 함께 수행자가 있는 곳으로 오시느니라.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손에 들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오시느니라. 아미타불께서 대광명을 발하여 수행자를 비추시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함께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밀어 수행자를 맞이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찬미하며 계속 정진하고자 하는 그의 원을 격려하시느니라.”

「행자견이, 환희용약, 자견기신, 승금강대, 수종불후, 여탄지경, 왕생피국.」

강설: “수행자가 부처님과 보살을 뵈 후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몸이 금강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 순식간에 서방극락세계에 이르게 되느니라.”

「생피국이, 견불색신, 중상구족; 견제보살, 색상구족; 광명보림, 연설묘법. 문이, 즉오무생법인. 경수유간, 역사제불, 편시방계, 어제불전, 차제수기, 환지본국, 득무량백천타라니문.」

「시명상품상생자.」

강설: “극락세계에 이른 후 아미타불의 법상(法相)을 보니 지혜를 완벽히 구족하셨으며, 모든 보살의 법상 또한 장엄하고 아름다우니, 광명이 찬란한 보배 나무 숲에서 불법을 설하시느니라. 수행자는 그 설법을 듣고 곧 무생법인(無生法忍)의 경지를 깨닫느니라. 또한 순식간에 두루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뵈고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일일이 축복의 수기(授記)를 받느니라. 그 후 본국(本國, 서방극락세계)으로 돌아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얻느니라.”

“이를 ‘상품상생자’라 한다.”

「상품중생자, 불필수지독송방등경전. 선해의취, 어제일의, 심불경동, 심신인과, 불방대승, 이차공덕회향, 원구생극락.」

강설: “상품중생자(上品中生者)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니라.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배우지 않아도 불성의 지혜가 높고, 청정한 지혜를 추구하기 좋아하며,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느니라.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경우이니라.”

「행차행자, 명욕종시, 아미타불, 여관세음, 대세지, 무량대중, 권속위요, 지자금대, 지행자전, 찬언:『법자! 여행대승, 해제일의, 시고아금래영접여!』 여천화불, 일시수수.」

강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명이 끝나려고 할 때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량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자금대를 손에 들고 그 수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시느니라. ‘나의 자식이여, 그대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한 불성의 지혜가 높으므로 우리가 지금 그대를 맞이하노라.’ 아미타불과 수많은 화신불 모두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하여 이끌어 주시느니라.”

「행자자견좌자금대, 합장차수, 찬탄제불, 여일염경, 즉생피국. 칠보지중, 차자금대, 성대보화, 경숙즉개.」

강설: “수행자가 자신이 이미 자금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합장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그 찰나에 서방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속에 이르느니라. 수행자가 앉은 자금대는 한 송이 거대한 보배 꽃으로 변하여 하룻밤이 지나 곧 피어나느니라.”

「행자신작자마금색, 족하역유칠보연화, 불급보살, 구시방광, 조행자신, 목즉개명, 인전숙습, 보문중성, 순설심심제일의제. 즉하금대, 예불합장, 찬탄세존.」

강설: “그의 몸은 자금색으로 변하고, 발 아래에도 칠보 연꽃이 있느니라. 아미타불과 모든 보살들이 함께 광명을 발하여 광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바로 눈을 뜬다. 과거 인간 세상의 업력과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부처

님과 보살이 그를 위해 설하는 더욱 심오한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들을 수 있으며, 다 듣고 나서 곧 자금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무량수부를 찬탄하느니라.”

[편집자 주] 자마금(紫磨金): 자줏빛 색을 띠는 황금으로, 황금 중 최상품에 속하며 인도의 염부단금(閻浮檀金)을 달리 이르는 말.

「경어칠일, 응시즉어아녹다라삼막삼보리, 득불퇴전. 응시즉능비행, 편지시방, 역사제불. 어제불소수제삼매, 경일소겁, 득무생인, 현전수기.」

「시명상품중생자.」

강설: “7 일이 지난 후 그는 곧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지혜를 얻고 다시는 퇴전하지 않느니라. 그때가 되면 시방세계로 날아가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고,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최고 경지의 수행을 닦느니라. 한 소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불생불멸의 청정한 지혜를 증득하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어 미래의 부처로 수기를 받느니라.”

“이를 ‘상품중생자’라 한다.”

「상품하생자, 역신인과, 불방대승, 단발무상도심, 이차공덕회향, 원구생극락국.」

강설: “상품하생자(上品下生者) 역시 인과를 믿고 대승불교를 비방하지 않지만 해탈의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느니라.”

「행자명옥종시, 아미타불, 금관세음, 대세지, 여제보살, 지금연화, 화작 오백불, 내영차인. 오백화불, 일시수수, 찬언:『법자! 여금청정, 발무상도심, 아래영여!』」

강설: “이러한 수행자는 임종에 이르렀을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여러 보살과 5 백 분의 화신불과 함께 금련화를 손에 들고 그를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5 백 분의 화신불이 모두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하며 찬탄하시느니라. ‘나의 자식이여, 지금 그대가 이미 청정한 자재로움을 얻었고 또한 무상의 도심(道心)을 발하였기에 우리가 친히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견차사시, 즉자견신좌금연화, 좌이화합, 수세존후, 즉득왕생칠보지중, 일일일야, 연화내개, 칠일지중, 내득견불. 수견불신, 어중상호, 심불명료, 어삼칠일후, 내료료견. 문중음성, 개연묘법, 유역시방, 공양제불, 어제불전, 문심심법. 경삼소겁, 득백법명문, 주환희지.」

「시명상품하생자, 시명상배생상, 명제십사관.」

강설: 수행자는 이러한 광경을 본 후에 자신이 금련화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앉자마자 꽃잎이 달히면서 바로 부처님의 뒤를 따라 서방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속 연꽃 안에 왕생하느니라. 하루 밤낮을 지나니 연꽃이 피어나고, 7 일 안에 비로소 부처님을 뵈느니라. 비록 아미타불의 신상(身相)을 뵈기는 하나 마음속으로는 명료하지 못하다가 21 일이 지난 후에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부처님의 신상을 분명하게 보느니라. 이때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모두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니라. 그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더욱 심오한 불법을 듣느니라. 다시 3 소겁의 시간이 더 지나면 초지(初地) 보살의 과위인 ‘환희지(歡喜地)’ 보살의 과위를 얻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바로 ‘상품하생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상등(上等) 왕생자의 경우이며, ‘상배생상(上輩生想)’이라 하고 이를 ‘제 14 관’이라고 한다.”

불고아난, 급위제희: 「중품상생자, 약유중생, 수지오계, 지팔계재, 수행제계, 불조오역, 무중과환, 이차선근, 회향원구, 생어서방극락세계.」

「임명중시, 아미타불, 여제비구, 권속위요, 방금색광, 지기인소, 연설고, 공, 무상, 무아, 찬탄출가, 득리중고.」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중품상생자(中品上生者)는 오계(五戒)를 수지하고 팔관재계를 지니며, 계율을 지키고, 오역악업(五逆惡業)을 짓지 않으며, 갖가지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아 이러한 지계의 선근(善根)으로 회향하여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에워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수행자의 앞에 오셔서 그를 위해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불법을 설하시고, 출가하여 고통에서 벗어남을 찬탄하시느니라.

[편집자 주]

1. 오계(五戒):
  - 1) 살생하지 않는다.
  - 2) 도둑질하지 않는다.
  - 3) 사음하지 않는다.
  - 4) 망언하지 않는다.

5) 술을 마시지 않는다.

2. 팔관재계(八關齋戒):

1) 살생하지 않는다.

2) 도둑질하지 않는다.

3) 사음하지 않는다.

4) 망언하지 않는다.

5)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7) 꽃 장식을 머리에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지 않으며,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그러한 것을 보거나 듣지 않는다.

8) 높고 넓은 큰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오역악업(五逆惡業):

1) 아버지를 죽이는 일.

2) 어머니를 죽이는 일.

3) 아라한을 죽이는 일.

4)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일.

5)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일.

「행자견이, 심대환희, 자견기신, 좌연화대, 장궤합장, 위불작례, 미거두경, 즉득왕생극락세계.」

「연화심개, 당화부시, 문중음성찬탄사제, 응시즉득아나한도. 삼명육통, 구팔해탈.」

「시명중품상생자.」

강설: “이 수행자가 부처님을 뵈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연화대에 앉은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

느니라. 절을 올린 머리를 미처 들기도 전에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잠시 후 연꽃이 열리니, 꽃이 열리자 수행자는 ‘사성제(四聖諦)’의 법을 찬탄하는 많은 소리를 듣고 그 즉시 아라한 과위를 얻어 자신의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알며,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신족통의 총 6 가지 신통이 생기고 8 가지 해탈의 방법을 구족하느니라.”

“이를 ‘중품상생자’라 한다.”

[편집자 주] 사성제(四聖諦):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하며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신 불법의 핵심.

「중품중생자, 약유중생, 약일일일야, 지팔계재; 약일일일야, 지사미계; 약일일일야, 지구족계; 위의무결, 이차공덕회향, 원구생극락국.」

강설: “중품중생(中品中生)이란 어떤 중생이 하룻낮 하룻밤 동안 팔관계계를 지키거나, 하룻낮 하룻밤 동안 사미계(沙彌戒)를 지키거나, 하룻낮 하룻밤 동안 ‘구족계(具足戒)’를 지키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이러한 지계의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경우이니라.”

[편집자 주]

1. 사미계(沙彌戒): 사미(沙彌, 남자 예비 승려), 사미니(沙彌尼, 여자 예비 승려) 가 지켜야 할 10 가지 계율.
2. 구족계(具足戒): 비구(比丘, 남자 정식 승려), 비구니(比丘尼, 여자 정식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 비구의 구족계는 250 가지이고, 비구니의 구족계는 348 가지이다.

「계향훈수. 여차행자, 명옥종시, 견아미타불, 여제권속, 방금색광, 지칠보연화, 지행자전, 행자자문공중유성, 찬언: 『선남자! 여여선인, 수순삼세제불교법, 아래영여!』 행자자전, 좌연화상. 연화즉합, 생어서방극락세계.」

「재보지중, 경어칠일, 연화내부. 화기부이, 개목합장, 찬탄세존, 문법환희, 득수타환, 무반겁이, 성아나한.」

「시명중품중생자.」

강설: “지계를 수행한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마타불께서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색 광명을 비추며 칠보 연꽃을 손에 지니고 그의 앞에 이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이 수행자는 허공에서 찬탄의 음성을 듣느니라. ‘선남자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따랐으므로 우리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이 수행자는 자신이 연꽃 위에 앉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연꽃이 달히고 이로써 곧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그가 칠보 연꽃 가운데 앉아 7 일이 지나니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연꽃이 열릴 때 눈을 뜨고 합장하며 무량수불을 찬탄하느니라. 불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아라한의 초과(初果), 즉 수다원(須陀洹)의 과위를 얻느니라. 다시 반 겁의 수행을 거친 후 아라한의 과위를 성취하느니라.”

“이를 ‘중품중생자’라 한다.”

「중품하생자, 약유선남자, 선녀인, 효양부모, 행세인자, 차인명옥종시, 우선지식, 위기광설아미타불, 국토락사, 역설법장비구, 사십팔원.」

강설: “중품하생(中品下生)이란 어떤 사람이 부모를 효성으로 모시며, 인자하고 우애롭게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우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임종에 이르렀을 때 선인(善人)을 만나 그 선인이 아미타불과 서방극락세계의 일을 말해 주고, 또 법장(法藏) 비구의 48 대원(大願)을 말해 주느니라.”

「문차사이, 심즉명종. 비여장사, 굴신비경, 즉생서방극락세계.」

강설: “이러한 일을 듣고 난 뒤 그의 목숨이 곧 끊어지고,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펴는 것과 같은 잠깐 사이에 곧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경칠일이, 우관세음, 급대세지, 문법환희, 득수타환, 과일소겁, 성아나한.」

강설: “7 일이 지나면 그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 두 보살의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아라한의 초과, 즉 수다원의 과위를 얻고, 다시 일소겁(一小劫)의 수행을 거쳐 아라한의 과위를 성취하느니라.”

「시명중품하생자. 시명중배생상, 명제십오관.」

강설: “이를 ‘중품하생자’라고 한다. 이것이 ‘중배생상(中輩生想)’이며 이를 ‘제 15 관’이라고 한다.”

불고아난급위제희: 「하품상생자, 흑유중생작중악업, 수불비방방등경전, 여차우인, 다조악법, 무유참괴, 명욕중시, 우선지식, 위설대승십이부경수제명자, 이문여시제경명고, 제각천겁극중악업. 지자복교합장차수, 칭나무아미타불, 칭불명고, 제오십억겁생사지죄.」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품상생(下品上生)이란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짓는 경우 이니라. 비록 대승경전은 비방하지 않으나,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악업을 짓고도 일말의 부끄러움과 참회의 마음도 없는 경우이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선인을 만나 그 선인이 대승경전의 이름을 말해 주면, 이를 들은 덕분에 천 겁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선인(大善人)이 그를 가르쳐 합장하고 공경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도록 하니,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연유로 50 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이시, 피불즉견화불, 화관세음, 화대세지, 지행자전, 찬언:『선남자! 이여칭 불명고, 제죄소멸, 아래영여!』 작시어이, 행자즉견화불광명, 편만기실, 견이 환희, 즉편명중, 승보연화, 수화불후, 생보지중. 경칠칠일, 연화내부.」

강설: “이때 무량수불께서 곧 화신불과 관세음보살의 화신, 대세지보살의 화신을 그의 앞에 보내시어 찬탄하시느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연유로 모든 죄업이 이미 사라졌기에 우리가 지금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임종을 앞둔 그가 곧 화신불의 광명이 방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느니라. 그 후 곧 목숨이 끊어져 보배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가운데 왕생 하고, 다시 49 일이 지나 연꽃이 피느니라.”

「당화부시, 대비관세음보살, 급대세지보살, 방대광명, 주기인전, 위설심 심십이부경. 문이신해, 발무상도심, 경십소겁, 구백법명문, 득입초지.」

「시명하품상생자.」

강설: “연꽃이 필 때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대광명을 비추며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위하여 심오한 불법을 설하시느니라. 그가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니 곧 무상의 보리심을 발하느니라. 다시 10 소겁이 지나 초지 보살의 과위를 얻느니라.”

“이를 ‘하품상생자’라 한다.”

불고아난, 급위제희: 「하품중생자, 흑유중생, 휘범오계, 팔계, 급구족계, 여차우인, 투승기물, 도현전승물, 부정설법, 무유참괴. 이제악업, 이자장엄. 여차죄인, 이악업고, 응타지옥, 명옥중시, 지옥중화, 일시구지.」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하셨다. “하품중생(下品中生)이란 어떤 중생이 오계, 팔계, 구족계를 거스르는 경우이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출가 수행자의 물건을 훔치고, 입으로 망언과 비방을 내뱉으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러한 악업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매우 오만하느니라. 이러한 죄인은 악업을 지은 연유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니,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곧 지옥의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불타느니라.”

「우선지식, 이대자비, 즉위찬설아미타불, 십력위덕, 광찬피불, 광명신력, 역찬계정혜, 해탈, 해탈지견; 차인문이, 제팔십억겁생사지죄, 지옥맹화 화위청량, 풍취제천화, 화상개유화불보살, 영접차인.」

강설: “만일 그가 기회와 인연이 닿아 대선인을 만나면 그 대선인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아미타불의 대위력, 대자비, 대공덕과 그

광명의 신력을 널리 설하고, 더욱이 계(戒) · 정(定) · 혜(慧) · 해탈의 이치를 설하고 찬탄하느니라. 그가 이 설법을 듣고 나서 이치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곧 80 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소멸하느니라.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꽃을 흩날리며, 꽃위마다 모두 화신불과 화신 보살이 있어 그를 맞이하시느니라.”

「여일념경, 즉득왕생칠보지중, 연화지내, 경어육겁, 연화내부. 관세음, 대세지, 이범음성, 안위피인, 위설대승심심경전. 문차법이, 응시즉발 무상도심.」

「시명하품중생자.」

강설: “그 찰나에 그는 곧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가운데 있는 연꽃 속에 왕생하고, 다시 6 겁이 지나서야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천상의 소리로 그를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대승의 심오한 경전을 설하느니라. 그는 이 설법을 듣고 즉시 무상의 보리심을 발하느니라.”

“이를 ‘하품중생자’라 한다.”

불고아난, 급위제희: 「하품하생, 흑유중생, 작불선업, 오역십악, 구제불선, 여차우인, 이악업고, 응타악도, 경력다겁, 수고무궁.」

「여차우인, 임명중시, 우선지식, 종종안위, 위설묘법, 교영염불, 피인고핍, 불황염불; 선우고언: 「여약불능염피불자, 응칭무량수불, 여시지심, 영성

부절, 구족십념, 칭나무아미타불.』 칭불명고, 소년념중, 제팔십억겁생 사지죄.』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후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품하생(下品下生)이란 어떤 중생이 악업을 짓고 오역십악의 중죄를 범하며 또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이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죄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니, 여러 겁을 거쳐 무궁한 고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대선인을 만나면 그 대선인이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자비로운 법문을 설하고 염불을 가르치느니라. 그가 온갖 고통으로 핍박받아 염불할 경황이 없으므로, 대선인이 그에게 권하느니라. ‘이토록 많은 부처님 명호를 모두 염송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으니, 나와 함께 무량수불을 염송하도록 하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염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무아미타불을 최소한 열 마디 염송하여라.’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연유로 곧 80 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명종지시, 견금연화, 유여일륜, 주기인전, 여일염경, 즉득왕생극락세계.」

「어연화중, 만십이대겁, 연화방개, 관세음, 대세지, 이대비음성, 위기광설 제법실상, 제멸죄법. 문이환희, 응시즉발보리지심.」

「시명하품하생자. 시명하배생상, 명제십육관.」

강설: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 한 송이 금색 연꽃이 마치 태양처럼 그의 앞에 머무는 광경을 보는데, 그 찰나에 곧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그가 칠보 연못의 연꽃 속에서 12 대겁의 시간을 지내야 비로소 연꽃이 피어나고,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불법을 설하니, 이로써 그의 죄업을 사하느니라. 그가 이 가르침과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곧 보리심을 발하느니라.” “이것이 곧 ‘하품하생자(下品下生者)’이며, ‘하배생상(下輩生想)’이라 부르고, 이를 ‘제 16 관’이라고 한다.”

설시어시, 위제희여오백시녀, 문불소설, 응시즉견극락세계광장지상, 득견불신, 급이보살, 심생환희, 탄미증유, 활연대오, 체무생인. 오백시녀,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 원생피국. 세존실기, 개당왕생. 생피국이, 획득제불현전삼매. 무량제천, 발무상도심.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위제희 왕후가 5 백 명의 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극락세계의 광활한 국토를 보았으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보았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일면서 이렇게 수승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음을 찬탄하고, 곧 활연히 크게 깨달아 불생불멸의 청정한 지혜를 증득하였다. 5 백 명의 시녀들도 무상의 보리심을 발하고 서방극락세계로의 왕생을 발원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들을 모두 일일이 기억하시며, 미래에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후에 모든 부처님이 그들 앞에 미묘히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경전을 들은 무량한 모든 천신과 천인들 또한 무상의 보리심을 발하였다.

[편집자 주] 도심(道心): 불도(佛道)를 수행하고자 뜻을 세우는 마음, ‘보리심(菩提心)’의 동의어.

이시아난즉종좌기, 백불언: 「세존! 당하명차경? 차법지요, 당운하수지?」  
불고아난: 「차경명관극락국토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역명정제  
업장, 생제불전, 여당수지, 무령망실.」

강설: 이때 아난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을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하며, 이토록 중요한 경전을 저희가 어떻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대답하셨다. “이  
경전의 이름은 <관극락국토무량수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觀極樂國土  
無量壽佛觀世音菩薩大勢至菩薩)>이며, 또한 <정제업장생제불전(淨除業  
障生諸佛前)>이니라. 그대는 이를 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행차삼매자, 현신득견무량수불, 급이대사. 약선남자, 급선여인, 단문불명,  
이보살명, 제무량겁생사지죄, 하황억념?」

강설: “이러한 미묘한 법을 배우는 사람은 지금 현생에서 무량수불과 두  
분의 대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러한 인연이 닿은 사람이 아미타불과 두  
보살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곧 무량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사할 것인데,  
하물며 이와 같은 관상을 수행하면 어떠하겠느냐?”

「약염불자, 당지차인, 칙시인증분타리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위기  
승우; 당좌도장, 생제불가.」

강설: “이 경전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지니는 모든 사람이 곧 가장 성결  
(聖潔)한 사람이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바로 그의 가장 좋은  
벗이며, 이러한 사람은 미래에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니라.”

[편집자 주]: 분다리화(分陀利華): 백련화(白蓮花)를 뜻하며 성스럽고 고결함을 상징한다.

불고아난: 「여호지시어, 지시어자, 즉시지무량수불명.」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가 전수하는 법을 잘 기억하고 그 내용을 잘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는 곧 무량수불을 관상하는 수행과 같으니라.”

불설차어시, 존자목건련, 존자아난, 급위제희등, 문불소설, 개대환희.

이시세존, 족보허공, 환기사굴산. 이시아난, 광위대중, 설여상사. 무량제천, 용, 야차, 문불소설, 개대환희, 예불이퇴.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건련 존자, 아난 존자, 위제희 왕후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허공을 딛고 걸으시어 영취산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난 존자가 대중들을 위하여 이 법을 널리 설하였다. 무량한 천신, 천룡, 야차 등이 부처님의 수승하고 미묘한 법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공경의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나무아미타불

(삼창)

회향계 回向偈

원이차공덕 장엄불정토

상보사중은 하제삼도고

약유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차일보신 동생극락국

경전 원문 참고 출처: CBETA 한문대장경(漢文大藏經)



보리법문  
BODHI DHARMA